

금남지하상가 불 꺼지나

관리업체 전기료 1억 장기 체납…한전, 21일부터 단전 통보

점포주들 “관리비 냈는데…” 분통

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금남지하상가의 불이 꺼질 처지에 놓였다. 한전이 오는 18일까지 체납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8일 금남지하상가 관리업체와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유)금남지하상가가 올해 2~4월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된 요금은 2월 2310만원, 3월 3717만원, 4월 3526만원 등 총 8486만원에 달하며, 5월분까지 합하면 1억2000만원이 넘는다.

전기요금 체납이 장기화되자 한전

은 최근 금남지하상가 관리사무소와 입주 점포 주인들에게 ‘오는 18일까지 체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1일 오전 전기공급을 정지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2개월간 체납되면 전기공급을 끊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금남지하상가의 경우 입주 상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하도로서의 공공성을 감안해 1개월간 유예하는 등 노력했지만 관리회사와 광주시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단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남지하상가는 1공구(금남로3

가·전일빌딩)에 204개 점포와 2공구(분수대)에 174개 점포가 입주해 있으며, 1공구는 광주도시공사가, 2공구는 금광기업 계열사인 (유)금남지하상가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2공구의 경우 최근 모기업인 금광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와 네각 탑봉과 등 악재가 겹쳐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단전 통보에 금남지하상가 점포 주인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도심공동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 문화전당 공사까지 겹쳐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전기까지 끊긴다고 하니 좌불안석이다. 특히 1공구 상인들은

이미 관리비를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단전이 될 경우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금남지하상가는 한 상인은 “도심 공동화, 문화전당 공사, 네각 탑봉과 겹쳐서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걱정인데 단전까지 하겠다니 답답하다”면서 “지하상가는 공공시설이기도 한데 광주시가 나몰라라 한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남지하상가는 민간자본 시설로 관리권이 금광기업에 있어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임을 감안해 단전 사태만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상의는 8일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리금융지주의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줄 왼쪽부터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김광현 여수상의 회장, 송영수 순천광양상의 회장.

(광주상의 제공)

광주 미분양 할인 ‘봇물’

최고 1억원 이상 인하·발코니 무료 확장 등 다양한 혜택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면서 분양가를 최고 1억원 이상 할인해주거나 발코니 무료 확장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건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8일 부동산정보 전문업체인 사랑방신문(www.sarangbang.com)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에서 GS건설, 진흥기업, 대림산업·한국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선납할인’, ‘층별 차등할인’ 등을 내세우며 분양가를 공식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한국건설은 서구 풍암동 한국아델리움 풍암2차 아파트 단지 164㎡ 형의 분양가를 층별로 17~21%까지

차등 할인해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기준가는 3억9150만원으로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800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1100여만원인 발코니 확장비용의 40%를 지원하고 거실과 주방에 3대의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

대림산업은 서구 광천동 재개발 지역에 공급하는 ‘대림 e-편한세상’의 분양가를 기간 안에 잔금을 완납하면 층별로 15~24%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을 내걸었다. ‘선납할인’을 적용하면 194㎡형은 8100만~1억593만원, 164㎡는 5700여만원, 142㎡는 2900여만원이 할인된다.

진흥기업은 서구 금호지구에 ‘금호 상무 푸르지오’ 계약자에게 분양 지원금을 제공하고 명지건설도 광산구 송정동 명지로드힐의 분양가를 할인해 분양 중이다.

사랑방신문 관계자는 “할인 분양은 정부의 미분양 대책으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때 미분양을 떨쳐버리는 건설사들의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흥 ‘더루벤스’를 선납할인 조건으로 특별 분양 중이고, GS건설은 ‘수완자이’ 7개 동과 ‘첨단자이’ 10개 동, ‘상무자이’ 8개동의 일부 잔여 가구를 할인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서구 쌍촌동 ‘금호 상무 푸르지오’ 계약자에게 분양 지원금을 제공하고 명지건설도 광산구 송정동 명지로드힐의 분양가를 할인해 층별로 15~24%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을 내걸었다. ‘선납할인’을 적용하면 194㎡형은 8100만~1억593만원, 164㎡는 5700여만원, 142㎡는 2900여만원이 할인된다.

사랑방신문 관계자는 “할인 분양은 정부의 미분양 대책으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때 미분양을 떨쳐버리는 건설사들의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산재 급증

올 1023명…21% 증가

올들어 광주지역에서 산재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광주지역 산재재해자 수는 10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5명에 비해 178명(21%)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는 끼임 사고, 30인 미만 건설관련업과 5인 미만 음식·숙박업소에서는 넘어져 다친 사고,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추락과 충돌 사고가 많았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오는 9월 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역량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1210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銀 인수’ 지역상공인 뭉쳤다

광주·목포 등 4개 商議…우리금융지주서 분리 매각 요청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으로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상공인들이 광주은행 인수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상의회의소는 8일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박홍석 회장·주영순 목포상의 회장·김광현 여수상의 회장·송영수 순천광양상의 회장과 각 상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역 자본에 대한 광주은행 인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주상의가 주도적으로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키로 하

고 ‘우리금융지주의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우리금융그룹, 정치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과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유통 등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 시점에 지역 금융기반 강화가 절실히”며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리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은행 인수 자금 1조~1조5000억원은 지역 상

공인과 광주·전남 연고 대기업, 시도민 참여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 상공회의소는 지난 2005년 11월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했다가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한 정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자 중단한 바 있으며, 올들어 재추진에 나섰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은 지난달 광주상의 임시의원총회에서 지역 자본으로 광주은행 인수 추진을 의결하고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을 잇따라 면담해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요구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女사장 100명 중 18명

“내 남편은 전업주부”

근로·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연금 등의 소득이 발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여성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란 여성 100명 중 18명의 남편은 소득이 없어 ‘전업주부’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 신고자는 143만8000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356만

5000명의 40.3%에 달했다. 이는 2004년의 신고자 77만1000명과 비교할 때 4년 만에 86.5%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배우자 소득공제(연 100만원)를 받은 비율은 18.2%(26만2000명)로 나타났다.

즉 여성 종합소득 세 신고자 100명 가운데 18명의 남편은 연간 소득금액이 아예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셈이다. /연합뉴스

光銀 사이버 지점 개편

‘e-우주금융센터’로

광주은행 사이버 지점이 9일부터 ‘Bank 4U’에서 ‘e-우주금융센터’로 개편된다.

‘e-우주금융센터’(www.kjbank.com)는 기존 상품 배열식 금융쇼핑몰 형태에서 고객들이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지점으로 개편됐다.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e-우주금융센터’지점에서 금융상품을 기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2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쿠폰(5000원권)을 달릴자의 핸드폰으로 발송한다. /윤영기자 penfoot@

기아 중고차값 현대차 제쳤다

기아차 브랜드가 중고차 가격에서 현대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고차 전문업체인 SK엔카에 따르면 2008년식 차량의 6월 현재 평균 감가율은 기아차 브랜드가 29.1%

로, 현대차의 30.7%보다 낮다. 중고차는 감가율이 낮을수록 차량 가격이 비싸진다.

기아차는 지난달 신차 내수 시장에서 처음으로 월간 4만대 판매를 넘어서면서 34.6%의 점유율로 42.5%를 기록한 현대차를 비추 주격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품평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품평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품평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품평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품평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